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서 은 숙*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 부부의 부부친밀감의 형성 경험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부부친밀감의 경험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부부친밀감의 형성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 부부 5쌍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구조는 어떠한가? 이다.

심층면담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홀로됨의 외로움’, ‘재혼을 고민함’, ‘재혼 전 친밀감’, ‘녹록지 않은 재혼생활’, ‘부부친밀감’, ‘행복한 재혼생활’의 6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으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일반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재혼부부가 ‘둘이 됨’에서 온전한 ‘하나 됨’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동력은 ‘신앙’임이 발견되었다. 기독교 상담현장에서 실제로 이를 적용하여 재혼부부의 친밀감의 형성을 돕고 재이혼을 예방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재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 재혼부부, 재혼 생활, 부부친밀감, 현상학, 중·노년기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 이 연구는 한국성서대학교 서은숙의 박사학위 논문(2022년 8월, 지도교수: 오윤선)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한국 사회는 최근 들어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재혼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적인 한 가족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조양희 외, 2020: 576).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재혼율의 동향은 2019년(11.0%), 2020년(11.8%), 2021년(12.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21). 2019년도 재혼한 아내의 경우 94%가 이혼 이후 재혼이었으며 5.9%는 사별에 의한 재혼이었다(통계청, 2020). 통계에 의하면 재혼은 대부분 이혼에 의해 이뤄지며 재혼 부부나 재혼 가족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이은영 외, 2021: 100). 한국 사회의 이혼과 재혼의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종교적인 이유로 가정의 아픔을 잘 드러내지 않기에 정확한 통계는 어려우나 교인들의 이혼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최이화, 2019: 1). 미국의 가족학자 Ganong과 Coleman(1994)에 따르면 재혼한 가정에서 재혼 부부는 가정의 건축가들이며 가정이 세워지는 추춧돌만큼 건강한 부부관계는 부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Ganong & Coleman, 2003: 61). 대한민국의 재혼 관련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위해서 우선 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질 좋은 부부관계로 보고 있다(정현숙, 2016: 296-297).

재혼 부부들은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른 상대와 친밀감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와(장현정, 2010: 55-61) 자녀 양육의 역할 부담과 역할 과중, 역할 갈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 되면서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 외로움의 경험 등으로(김효순 외, 2011: 67-75)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회복하여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혼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재혼으로의 진입은 전혼에서 해체된 가족의 재구성으로 손상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장현정, 2010: 70-76),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 나가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삶의 의미이며 새로운 가족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재혼가족은 초혼가족에 비해 복잡하고 현실적이며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 해체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남동우, 2021: 2). 이에 김연옥(2007)은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재혼의 취약성으로 모호한 가족경계, 부부관계 보다 먼저 형성된 전혼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 가족 생활주기와 개인 생활 주기의 불일치, 부모의 재혼으로 비롯된 복잡한 친족 관계, 두 부모의 존재 등 다양한 재혼 가족의 특성이 재혼가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김연옥,

2007:172).

재혼 가족의 해체는 재이혼으로 이어지는데 미국의 재이혼율은 초혼부부의 이혼율이 40%인데 비해 재혼부부의 이혼율은 70%, 삼혼의 재이혼율은 90%에 이른다는 통계보고가 있다(U.S.A. Bureau of the Census, 2015). 한국의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자료(2014)에 의하면 재혼부부의 이혼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로서, 관련 전문가들은 초혼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효순, 2016: 240).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재혼율의 상승이 바로 가족 해체율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해 준다(김연옥, 2007: 174). 재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재혼의 동기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정서적 애착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변의 시선 등에 의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으로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결혼에 진입하고 부부 유대와 헌신이 약하여 운명공동체, 경제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 등 실제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때문이라 보았다(김연옥, 2007: 179-190).

재혼가정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재혼부모-자녀와의 적응, 청소년 자녀의 재혼가정 적응, 재혼부부의 결혼 생활 적응, 재혼 가족적응의 어려움 등 재혼가정의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가 있다(고은영 외, 2012; 권예원, 2017; 권혁출, 2014; 김미옥, 2014; 김성환, 2009; 김연옥, 2007; 김형민, 2015; 김효순, 2012; 김효순, 2006; 김효순, 하춘광, 2011; 김효신, 2004; 남동우, 2021; 박선영, 2015; 변복수, 2014; 유재은, 2014). 재혼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다룬 연구로는 재혼가족 구성원들의 삶이나 재혼가족들의 역할, 재혼가족의 해체, 재혼가족의 실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혁출, 2014; 김미옥, 2014; 김복희, 2008; 김연옥, 2007; 김혜신, 2015; 김효순, 엄명용, 박미정, 2010; 김효순, 하춘광, 2011; 양진희, 2012; 이남순, 2015; 장현정, 2010; 차연실, 2003; 최이화, 2020).

다양한 재혼가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바 있으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광현(2011)에 따르면 기독교인 부부가 법적인 이혼 혹은 '심리적 이혼' 상태로 부부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상실감과 혼란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급기야 가정이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거나 오래 머물렀던 교회를 떠나 사회적인 소외감과 위기에 직면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이혼으로 받은 충격과 상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의 정서적 손상과 더불어 올바른 신앙의 성장에 걸림과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최광현, 2011: 180). 이에 기독교 부부의 이혼과 재혼으로 발생 되는 문제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현정(2010)에 따르면 재혼부부들은 배우자와 친밀성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로 재혼으로 진입한다고 보고 있다(장현정, 2010: 3). 이는 재혼부부들이 재혼 선택의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외로움의 문제 해결(김효순, 하춘광, 2011: 137)이 있으며, 재혼 전 경험했던 홀로됨의 외로움이 해소되고 행복하고 만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부부의 강한 유대감과 친밀감이라고 하였다(구본진, 2008; 김명희 2007; 양진선, 2004).

Greenberg와 Johnson(1986)의 연구에서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긍정적 정서 요인 중 하나로 부부간의 친밀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친밀감을 부부관계 유지와 결혼만족의 중요한 요인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이 원활하게 기능할 때 드러나는 반면 부부친밀감의 부재는 결혼생활의 역기능적 지표가 된다. 부부관계의 친밀감 발달에서 자기개방과 파트너 반응요소는 직접적 영향을 미쳐왔으며, 파트너 반응에 대한 지각은 다른 대인관계보다 결혼 관계에 친밀감 경험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윤미혜, 2007: 12).

Chapman(2006)에 따르면 성경적 관점의 부부친밀감은 둘이 하나가 되는 친밀감이라 정의하였으며,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결혼생활의 핵심이라고 하였다(Chapman, 2015: 60-62). Balswick와 Balswick(1999)는 성경적 결혼관의 관점에서 부부의 친밀감은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먼저 배려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이며 이러한 부부관계의 논리적 시작점은 인약의 관계이고, 중심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약적인 사랑은 부부에게 안전감과 평안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은혜로움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섬기는 자유를 얻게 되고, 서로의 섬김은 부부 사이를 친밀하게 한다(Balswick & Balswick, 1999: 20).

부부친밀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의 심리 내적 변인과의 관계로 자아정체감, 자아분화 수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다(강명자, 2007; 김미라, 2001; 양진선, 2004; 정화숙, 2008). 그리고 부부의 가치관이나 취미, 성격이 일치할수록 친밀감이 높고(김미라, 2001; 임송은, 2008), 대인 간 변인으로 의사소통은 부부친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김명희, 2007; 박민지, 2006; 우명순, 2010). 원가족과의 분화가 잘 될수록(임정숙, 2007; 장선용, 2011; 장수진, 2006), 부부의 역할수행이 잘 이루어질수록(변선아, 2009) 친밀감이 높다.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르면 연애결혼일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아내의

친밀감 수준이 더 낮았다(김명희, 2007; 박민지, 2006; 우명순, 2010).

김인복(2020)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의 형성 경험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를 했다. 이정란(2019)은 첫 자녀를 출산한 부모 전환기 부부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하여 부모 전환기 부부친밀감의 삼각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양적 연구들로 부부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로 주로 부부친밀감에 정적 혹은 부적으로 기능한 요인 관련 연구이다.

한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한 최이화(2020)는 기독교 부부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결혼관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나눔을 가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 사이의 친밀감에 대한 경험을 고찰하고 분석했다. 더불어 김미순(2014)은 목회자 부부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부부들의 의사소통이 부부친밀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혜선(2003)은 중년기의 기독교 부부들을 대상으로 중년기 부부의 갈등과 위기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성서적인 부부관계의 이해를 통해서 부부친밀감을 증진하기 위한 8주간의 기독교적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로 일반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연구는 다수 확인이 되고 있으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친밀감의 형성 경험을 질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 상담자로서 기독교 재혼가정의 유지에 중요한 요소인 부부친밀감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 부부친밀감 형성경험을 연구하여 '기독교 재혼부부 상담' 현장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삶을 탐색하여 재혼부부의 친밀감 형성의 공통되는 핵심적 본질을 분석하여 부부친밀감 형성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여 참여자가 경험한 개별의미와 본질을 탐색하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재혼부부에 대한 이해

White와 Booth(1985)는 재혼부부란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한번

이상의 결혼 경력이 있고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재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부부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White & Booth, 1985: 690). 박희정(2018)은 재혼부부란 초혼에서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후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인생의 제2막을 함께 하는 동반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재혼이란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난 뒤 새로운 남편과 아내를 만나 다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삶의 새출발이다(김효순, 2016: 240).

재혼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1960대 Betty Friedan(1963)의 저술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The problem with no name)』를 통해 재혼가족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시작되었다. 18세기 이후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현재와 유사한 정도의 재혼 수준이 나타났고(Ganong & Coleman, 2003: 13) 재혼에 관한 연구는 Ganong과 Coleman(1994), Pasley와 Ihinger-Tallman(1994)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여러 다양한 이론들과 연구가 발전되어 왔다.

Furstenberg와 Spanier(1987)는 재혼의 과정이 초혼과는 달리 복잡하고 상이한 특징적인 차이에 대해 다음의 4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초혼의 경험은 재혼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초혼 경험이 재혼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배우자가 전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은 현재의 배우자가 전혼의 배우자와 관계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재혼부부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재혼부부는 초혼과 재혼의 시점이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일어난다. 넷째, 재혼부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결혼연령 집단(marriage cohort)의 성원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문화적 기준에 노출된다. 즉, 서로 다른 시기에 결혼한 개인은(예를 들면 70년대 초혼, 80년대 재혼)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된다(Furstenberg & Spanier, 1984: 425).

Ganong과 Coleman(1994)은 결혼에 대한 동기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결혼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 로맨틱한 동기를 우선했던 초혼과는 달리 재혼은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고, 외부 또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응, 자녀 양육 부담의 분담과 심리적 외로움, 규칙적인 섹스 파트너와의 관계 해결 등의 현실적인 동기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시에 이러한 현실적 동기는 과도한 기대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Ganong & Coleman, 2003: 70). 이러한 재혼의 선택은 순간적이고 강박적인 욕구에 의해 선택을 잘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Booth와 Edwards(1992)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속히 재이혼을 하는 것은 재혼의 경우 초혼보다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감소 되었을 때 빨리 그 결혼을 끝내려는 욕구 때문

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재혼생활의 질은 낮지 않으나 안정성이 낮은 것이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Booth & Edwards, 1992: 179-185).

김인복(2020)은 재혼부부의 특징에 있어 첫째, 초혼과 재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하여 결혼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대에서 오는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재혼부부는 근본적으로 초혼부부와는 다르게 기존에 형성된 가족체계 안으로 편입해서 이미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관계를 동시에 적응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부부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이들은 또한 이혼과 재혼의 과정을 겪으면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재혼부부는 높은 역할 긴장을 경험한다. 새 자녀에 대한 급조된 부모 역할 수행 감당은 새자녀와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은 재혼가족의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갈등 해결과 더불어 해체에 보호막이 되고 있다(김인복, 2020: 10-12). 김효순(2015)은 재혼부부는 ‘불완전한 제도’로 불리는 재혼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 새로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동시에 발전 시키면서 이전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김효순, 2015: 265).

2) 재혼부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구약성경에서 재혼은 창세기, 룻기, 사무엘하, 에스겔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Adams(1992)는 성경은 배우자의 사별 이후 재혼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Adms, 2008: 142-144). 배우자 사별 후에 자유롭게 재혼 할 수 있도록 허용되나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즉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재혼에 이른 이야기(룻 1:8-11)는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오지수, 2011: 29). 여호와 신앙으로 거듭난 룻은 유력한 이스라엘의 신앙인 보아스와 재혼에 성공함으로써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룻 4:21-22)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계보(마 1:1)에 그 이름을 남기는 영광의 여인이 되었다(권혁출, 2014: 29).

룻과 보아스의 재혼은 수혼 제도의 발전된 형태를 볼 수 있다(룻 4:1-17). 신명기 25장은 ‘형사취수(兄死娶嫂)’, ‘계대결혼(繼代結婚)’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는 제도를 설명한다. 라틴어 ‘레비르’는 남편의 동생이라는 뜻으로 이 제도는 결혼한 남

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 남자의 형제가 형수와 결혼하거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중에 서열에 따라서 가장 나이 많은 자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 죽은 형제의 후손을 이어주는 결혼 풍습을 말한다(창 38:8; 신 25:5-7; 마 22:24)(김재권, 2017: 35).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무를 자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재산의 손해를 볼까봐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무르지 못하겠음을 신을 벗어 증명하고 거부한다. 이를 보고 있던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로 룻과 계대결혼(룻 4장)을 통하여 예수의 조상 다윗의 족보(마 1:1-3)에 기록되는 영광을 보았다(김재권 2017: 34-36). Desmond(2004)는 룻기서에 대한 이해의 관점을 이스라엘인과 모압인의 결혼이 중심 주제이며 다윗 족보와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믿음을 가진 이방인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다윗 왕가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룻기는 다윗 왕조를 탄생시킨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한다는 점에서 메시아적 역사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Desmond, 2004: 267).

아브라함의 재혼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1-6절에 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내 사라와 사별한 후 두 번째 아내로 그두라를 맞이하여 재혼하여 전처 아들 이삭과 첩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외에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아서 남편의 전혼 자녀들까지 양육하였다. 아브라함의 재혼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에서도 배우자 사별 후에 재혼은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권혁출, 2014: 30-31).

신명기 24장 1-4절에서 당시 유대 사회의 이혼방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혼증서를 써 주고 집에서 내보낼 것을 명함으로 이는 여성이 이혼증서를 지참함으로써 전남편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문건이 되는 동시에 그녀가 재혼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보장되었다. 따라서 전혼에서 이혼이 허용되었을 때 재혼 가능성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오지수, 2011: 26). 구약성경에 나타난 재혼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전혼으로 상처 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으로 들어가며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재혼가족의 모습을 통해 해체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재창조이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권혁출, 2014: 33).

3) 부부친밀감에 대한 이해

친밀감을 획득한 사람은 Freud(1896)가 말하는 Ego가 건강한 사람과 유사하며, 일을하고, 사랑을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Erickson(1968)은 친밀감을 '친밀하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과 개방적이고, 지지적이며, 정신적이며, 부드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오윤선, 1997: 76). 이렇듯 친밀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보다는 먼저 대인관계 또는 이성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대부분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부부관계 연구가 상담과 연계를 맺으면서 주로 임상 분야에서 다루어왔던 부부친밀감의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이경희, 1998: 25).

Moss는 부부 친밀감에 대해 부부관계의 질적 수준을 개념화한 표현이며 부부 친밀감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정서, 인지, 신체적 친밀감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친밀감의 하위 구성요인을 헌신, 정서적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 상호성 등 5가지로 보았다(Moss & Schwebel, 1993: 33).

양진선(2004)은 부부 두 사람의 인지, 감정, 행동의 상호 공유성을 강조하면서,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기 적절한 개념이 바로 부부친밀감이라고 밝혔다(양진선, 2004: 3). 부부친밀감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고통 끝에 값진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Wechsler, 2008: 182). 부부관계에서 서로 다툼과 갈등이 많아서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친밀감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최소한의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단절인 이혼의 과정에 이르기 전에, 친밀한 요소들을 깨닫는다면 다시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친밀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관계는 죽어거나 죽은 관계가 될 것이다(Sternberg, 2002: 182).

4) 부부친밀감의 성경적 이해

부부친밀감에 대해 기독교적 접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부친밀감은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따라야 하며, 그 전에 부부 일체성과 친밀감에 대한 범주를 이해해야 한다(Thornton, 1989: 30). 부부 일체성과 친밀감에 대한 범주는 영구적인 신체적 결합, 우정의 언약, 역할 책임의 이행, 부부 의사소통, 함께 거주하기, 부부 이해, 상호 존경, 공동 양육, 부부 영적 활동, 부부의 성적인 관계 등이 있다(Thornton, 1989).

성경에서의 부부친밀감의 개념은 부부관계에서의 헌신과 사랑, 의지, 하나님과 인간

의 관계에서의 신뢰와 돌봄, 성령과의 교통함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돌보시며 인간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더불어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죄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로써만 가능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친밀감을 회복한 사랑의 교제 속(엡 2:1-22)으로 들어갈 수 있다(엄예선, 2007: 248). 친밀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는 곧 부부의 친밀감의 척도가 된다(김준수, 2010: 183-188).

Schaumburg(1991)는 부부친밀감에 대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 타락 이전에 존재한 완전한 친밀감(perfect intimacy)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타락 이후 인간이 경험하는 진정한 친밀감(real intimacy)으로 구분하였다. 완전한 친밀감은 인류의 타락이 있기 전에 누렸던 친밀감을 의미하며 이때 아담과 하와는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으며 회의도 없이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연합하듯 성적 관계를 이루어 최고의 기쁨과 쾌락을 누리는 친밀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인간의 타락 이후 형성된 진정한 친밀감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누리는 성적이고 관계적인 친밀감이다. 부부는 서로 성적, 관계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즐거워하나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불완전하다. 따라서 긴밀한 관계의 부부일지라도 때로는 배우자에게 실망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경험하고 진정한 친밀감을 누리는 중에도 부부는 완전한 노출 혹은 각자 개인의 성욕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진정한 친밀감은 완전한 친밀감에 비해 다른 것은 부부의 성적 표현이 배우자의 반응에 달려 있고 또한 그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되는 친밀감을 말한다(Schaumburg, 2014: 21-31).

성경에서의 부부친밀감의 특징은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친밀감 외에 '영적 친밀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적 친밀감은 부부 상호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함께 종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혹은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들을 나눔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함께 할 때 느끼는 친밀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엄예선, 2007: 250).

성경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신앙생활을 통해 훈련 시키는 도구이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역할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자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더구나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고 자손을 낳고 키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후손을 낳아 기르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 되고 종속되어야 한다. 결혼과 가정은 순결이나 개인적인 거룩함, 성화 되어 가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Campbell, 2005: 255).

영적 성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말씀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며 이를 남편에게까지 전파하여 범죄 하게 만들었다. 최초의 살인 역사의 현장 역시 가정으로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죽였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타락 이후 지속적으로 결혼과 가족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투에 관한 구절(엡 6:10-20)이 그 앞에 나오는 결혼(엡 5:21-33)과 자녀 양육(엡 6:1-4)에 관한 구절에 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결혼과 가정은 영적 전투의 현장임이 분명하다(Campbell, 2005: 278-279).

5) 용서의 은혜로서의 부부친밀감

인간관계의 친밀감의 원형은 창조와 함께 시작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준수, 2010: 187-190). 이러한 관점에서 부부의 친밀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으신 것 같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은혜와 용서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김준수, 2010: 208).

오윤선(2012)의 연구에서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처벌과 죄를 꾸짖는 것을 무효화하고 가해자에게 향한 원한을 풀거나 보복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용서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며 결국은 내적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서로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다(오윤선, 2012: 220). 용서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과정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Luskin, 2005: 23-42).

용서의 은혜란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언약과 은혜를 구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언약의 본질은 곧 은혜라고 볼 수 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은혜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상 은혜란 관계 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러한 은혜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되도록 부름 받았다. 은혜는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다(Hugenberger, 1994: 26).

오윤선(2012)은 용서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았다. 그는 인간의 대인관계적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사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맥락을 떠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즉 대인관계적 용서를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용서는 용서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정서적 치유를 넘어 상처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에 성경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오윤선, 2012: 222). 신구약성경은 거듭하여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참된 사랑의 관계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에게 새 생명을 공급했고(요 14:7; 롬 5:1), 기쁨을 얻었으며(요 16:20), 구원을 보장 받았다(롬 8:1). 용서의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 용서의 삶을 요구하시며 진정한 회개도 용서를 전제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Padovani, 1988: 34-41).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32절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한없이 지극하고 책임 있는 사랑을 자신의 아내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극한 사랑은 상대방 아내를 귀한 존재로 인정할 때 가능하다. 즉, 위의 25절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만큼의 가치만큼 더할 수 없이 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자는 서로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을만큼 귀하고 값진 존재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존재만으로 값진 가치임을 인정해 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 신약의 '사랑(agape)'의 개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줌 혹은 상대를 위한 희생함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사랑(agape)'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실 복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두거나 혹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하여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더불어 복종보다 더 포괄적이고 깊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도바울도 '사랑'이라는 말에는 복종의 의미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을 언급한 에베소서 5장 21-33절 말씀의 제목을 "서로 복종하라"로 명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말로 사랑을 정의하면서 모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타인을 우선시하는 마음과 자신의 자아를 희생하는 상호 복종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도바울은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똑같은 복종을 남편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지 ‘문체의 변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복종’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현상학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미 경험하였고 이러한 본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개인으로 연구 현상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부 모두 기독교인이며 재혼한 기독교 성인 이상의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A기관에서 부부 학교과정 및 세미나, 프로그램의 과정을 수료한 부부 혹은 과정 중에 있는 기독교 성인 재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자발적 부부들을 사전 면담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적합도 여부를 살핀 후, 부부 모두에게 신청서를 받고 연구 대상자 5부부 10명을 선정(단, 재혼 특성상 부부 간 나이 차이가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아내 기준 47세 이상-70세 미만)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 특성

부부	참여자	연령	성별	재혼 기간	전혼자녀	직업	교회 직분	초혼 해체 사유	재혼 형태
A 부부	1	77	남편	8년	아들3	은행 퇴직	집사	사별	법률혼
	2	68	아내		아들1, 딸1	주부	집사	이혼	
B 부부	3	69	남편	7년	아들1, 딸2	공무원 퇴직	집사	사별	사실혼
	4	68	아내		아들1, 딸1	주부	권사	이혼	

부부	참여자	연령	성별	재혼 기간	전혼자녀	직업	교회 직분	초혼 해체 사유	재혼 형태
C 부부	5	65	남편	10년	아들2	요양원 운영	장로	사별	법률혼
	6	60	아내		아들1, 딸1	요양원 운영	권사	이혼	
D 부부	7	65	남편	13년	아들1, 딸1	공무원 퇴직	집사	삼혼	법률혼
	8	61	아내		딸1	보험 설계사	권사	이혼	
E 부부	9	50	남편	7년	아들1	회사원	집사	이혼	사실혼
	10	49	아내		딸1	미용업	집사	이혼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면담을 실시하였고, 추가 면담은 3월부터 4월까지 하였다. 본 조사는 기독교 성인·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도에 관한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현상학 연구 경험자인 박사 1인과 전문가 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작성하였다.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두 부부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 한 부부는 연구 참여자의 집, 한 부부는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 한 부부는 연구 참여자의 집 부근에 위치한 조용한 스터디룸 카페에서 부부 각각 2회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실시하였다. 평균 1회기 인터뷰는 60분-90분 소요하였으며, 3-5회를 진행했다. 이외 2-3차례의 짧은 면담, 전화 인터뷰, E-mail를 통해 진술받은 자료들로 보완하여 자료수집이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재혼부부는 주제가 비교적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와의 rapport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자기표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섬세한 주의를 기울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재혼부부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연구자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경험들을 실감나게 진술해 주었다. 이혼의 경험이 있는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이혼의 과정과 재혼의 삶에서 고달픔을 이야기하는 중 4명은 눈물을 보이

면서 자신들의 아픈 경험들을 신체 언어로도 표현하며 진술해 주었다.

진술된 내용은 연구 참여자 동의하에 모두 녹취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진술되는 내용 외에도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상, 태도,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은 연구 노트에 따로 기록하였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누락 되었다고 여겨지는 자료들은 다시 E-mail과 전화, 영상전화를 통해 보완하고 수정했다. 녹취된 내용들은 모두 전사되었으며, 그것은 A4용지 10포인트 글자체로 84매 정도의 분량이며 본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자료분석

연구자는 녹취하여 전사된 심층 인터뷰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Giorgi 4단계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을 시행했다.

첫 번째 단계로 각 연구 참여자의 상황 진술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녹음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각 연구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2회 이상 들었으며 진술 내용 모두를 전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텍스트 내용을 정독하면서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분하였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아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친밀감 형성 경험의 내용 혹은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의미 간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 즉 참여자의 진술 내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사선으로 그어 번호를 기입하면서 구분하여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10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의미 단위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주제에 관련이 없거나 지나치게 개별적인 상황의 경험이라고 보이는 의미단위들은 제거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구자는 의미 단위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어 비교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끼리 모아서 그것들을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하면서 요약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들끼리 묶어서 나온 요약된 의미 단위로 추출하였다.

네 번째 단계로 요약된 의미 단위들을 연구 참여자들 간에 비교, 분석을 다시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이는 29개의 하위구성 요소를 추출 해냈다. 이 하위구성 요소들을 또다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의 재통합된 구성요소를 탄생시켰다.

3. 연구결과

1)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의 형성 경험 내용

구성요소 6개의 도출과정은 Giorgi 이론에 따라 연구자의 해석보다 현상 자체의 기술을 더 강조한 만큼 분석과정 내내 연구자의 주관의 섞인 지나친 해석을 경계하며 기술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1) 홀로됨의 외로움

첫 번째 구성요소는 <홀로됨의 외로움>이며 하위구성요소로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 '사별의 상실감', '전혼이 남긴 상처들', '경제적 불안과 고통' '신앙의 괴로움', '가정의 울타리에서 살고픈 열망', '치유와 소망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 이혼 혹은 사별로 아픈 이별을 경험하고 다시 홀로 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경험에 대한 기술이며 이러한 외로움은 새로운 상대와의 만남의 동기가 된다.

“제가 혼자 살 때는 걱정이 엄청 더 많았던 거죠.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뭐랄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막 그렇게 걱정과 불안이 참 많았어요.”

“가정사(폭력, 이혼에 대해)를 교회 사람들하고 말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죠 못했죠. 더군다나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반주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는 전혀 없었고 되도록이면 감춰야 되고...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래도 성도 간에 그 위로 받고 그게 너무나 그게 안 됐고....외로웠죠.”

“사별하고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집에 혼자 와서 있다 보면 이게 황~ 해가지고 진짜 힘든 거죠. 그게 딸 같으면 살갑게 하고 애들이 엄마 노릇이나 역할을 할 텐데.. 더 이렇게 적절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견디기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2) 재혼을 고민함

홀로됨의 외로움과 고달픈 세상의 편견과 시선 등은 연구 참여자들의 마음에 재혼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하위영역으로는 '혼자보다는 둘', '재혼에 대한 외부 압력', '재

혼을 주저함' 등의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

“제가 사별한 때가 53살이었는데 사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재혼을 해라 그렇게 해서 떠난 집사람을 밀어내야 된다. 그래야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몸만 상하고 하는 일도 제대로 못 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독교 싱글 모임이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들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저도 이제 초혼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걸 또 만나서 뭘 어떻게 또 처음부터 맞춰서 살아가나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 뭐 이렇게 그냥 술 먹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내 여자가 생기면 집에도 충실하게 잘 들어와야 되고 뭘가에 대한 이제 혼자 살던 거보다는 이제 제약 조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맞추고 살 수 있을까? 됐어 그냥 살자 하는 마음이 들었죠.”

(3) 재혼 전 친밀감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사귀는 시간을 가진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데이트를 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친밀감을 경험한다. 7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다시 찾아 온 사랑', '한결같은 모습에 믿음의 싹이 남', '상대를 신뢰하며 마음에 안심되 됨', '부모의 재혼을 수용하는 자녀들이고 마음', '나의 단점과 당신의 장점', '상대의 아픈 상처를 사랑과 긍휼로 안아줌', '주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와 친밀해짐' 등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면 좀 긴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갔죠. 그리고 애들한테도 내일 만남이 돼서 이러 이런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중보기도를 부탁한다고 요청도 했지요.”

“우리 이제 싱글 크리스찬 모임을 한번은 초대를 해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이제 음식을 딱 차려서 한 10명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 먹었는데 ‘이야 이거구나’ 제 입에 딱 맞는거예요. 그때 저는 또 어떤 아내의 사랑이 입맛을 통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장롱이고 뭐고 다 열려 있고 카메라가 다 없어지고 패물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체하는 중이었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얼른 택시 타고 왔더라고요. 와서 경찰서 신고해 갖고 그렇게 든든하더라고.”

“저는 전 아내와도 이제 가정생활도 참 아주 멋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고...그 30년 동안 그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겠어요. 그거를 그때 이제 말씀에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사진을 이제 없애기 시작했죠. 근데 핸드폰에 임종 직전에 저희 큰딸하고 이제 숨 거두기 전에 편안한 모습을 그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그 사진을 정말 못 지우겠더라고요. 그걸 지울 때 이제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하려면 정말 새롭게 가려면 그걸 버려야 된다...그래서 마지막 사진까지 지웠죠.”

(4) 기록지 않은 재혼생활

사립의 과정에서 친밀함과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 되었다고 믿고 결혼을 했으나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듯 기록하지 않은 재혼생활은 ‘전혼 가정의 정(情)을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로 괴로움’, ‘경제적인 갈등’,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가정’, ‘인정보다는 비난하는 배우자로 상처’, ‘나의 헌신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배우자’, ‘미완성 부부’로 이루어져 있다.

“재혼도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무조건 저는 그냥 좋아하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결될 줄 알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고 결혼해서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아마 실망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자기 자녀들만 가족의 범주 안에 있고, 저는 가족의 범주 안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는 그러면 그냥 나가라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저가 바라는 것은 재혼을 했으면 부부 위주로 살고 자식이 최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인 거죠....그럴때는 내가 왜 결혼했나 싶은 마음이 들죠.”

(5)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은 ‘외부도움으로 갈등 해결’, ‘역할수행으로 갈등 해결’,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기’, ‘친밀감형성:헌신/봉사’, ‘친밀감형성:애정’ ‘친밀감 형성:신체적’, ‘친밀감 형성:신앙’, ‘친밀감 형성:의지, 노력, 소통’의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

“제가 드리는 문제로 그런 전쟁하다가 부부학교에서 개입을 해서 제사 문제는 풀렸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하니까 어머니 제사는 큰 아들이 가져가서...”

“애들을 위해서 엄마의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강원도 여행하면서 우리 큰 딸이 얼마나 치유됐는지...너무 힐링이 됐다고 고맙다고 우리 자녀가 다섯인데...옆에서 하는 걸 보고 정말 감사하고 ‘엄마 이상으로 당신이 역할을 해주는 게 고맙다’ 그런 것이 남자는 더 고마운 거죠. 내 자녀 네 자녀가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로...”

“우리 부부는 탕고를 함께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춤을 출때는 서로 몸을 밀착시키고 하다 보면 피부나 심장 숨소리까지 느끼다 보면 말로 할때와 다르고 깊게 친밀해지는 게 느껴져요. 산책 할때는 손을 잡으면 잡은 손에서 느끼게 되요.”

“영적인 친밀감 높이는데 이제 교회 선택도 참 중요하더라.... 재혼을 하면서 제3의 교회로 가서 시작했는데...만약 아내를 이해시키고 그냥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처음에 따라 왔겠지만 그 후는 참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 자꾸 그런 영적 다툼이 생기면 그

육체적인 친밀감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교회 선택도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면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예비하셨을 거라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그래서 마음이 전혀 이제 그렇게 흔들리거나 다음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역시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인 줄 몰랐는데...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내가 아팠던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을까... 정말 감사하죠.”

“두 번째 재혼 생활을 실패하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그때 진짜 믿지 않는 자와 재혼해서 고생하고 그런 풍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재 와이프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긴거야 복을 주신거지”

(6) 행복한 재혼생활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혼하는 ‘재혼을 뛰어넘어 새혼으로’ 가정을 세우고 복잡하고 많은 갈등을 넘어서 건디고 행복한 재혼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아내와 지금도 서로 가끔 이야기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정말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서 사는 것도 여기서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또 큰 주택도 아니지만 조그마한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오는 게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서로 해요”

“이혼 했을 때 사회에서도 고립된 것 같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사회적 관계에서 남편이 있다는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고, 재혼한 우리 들끼리 같이 여행도 가고 하니까 좋고 마음도 편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살맛 나고 그래요.”

2)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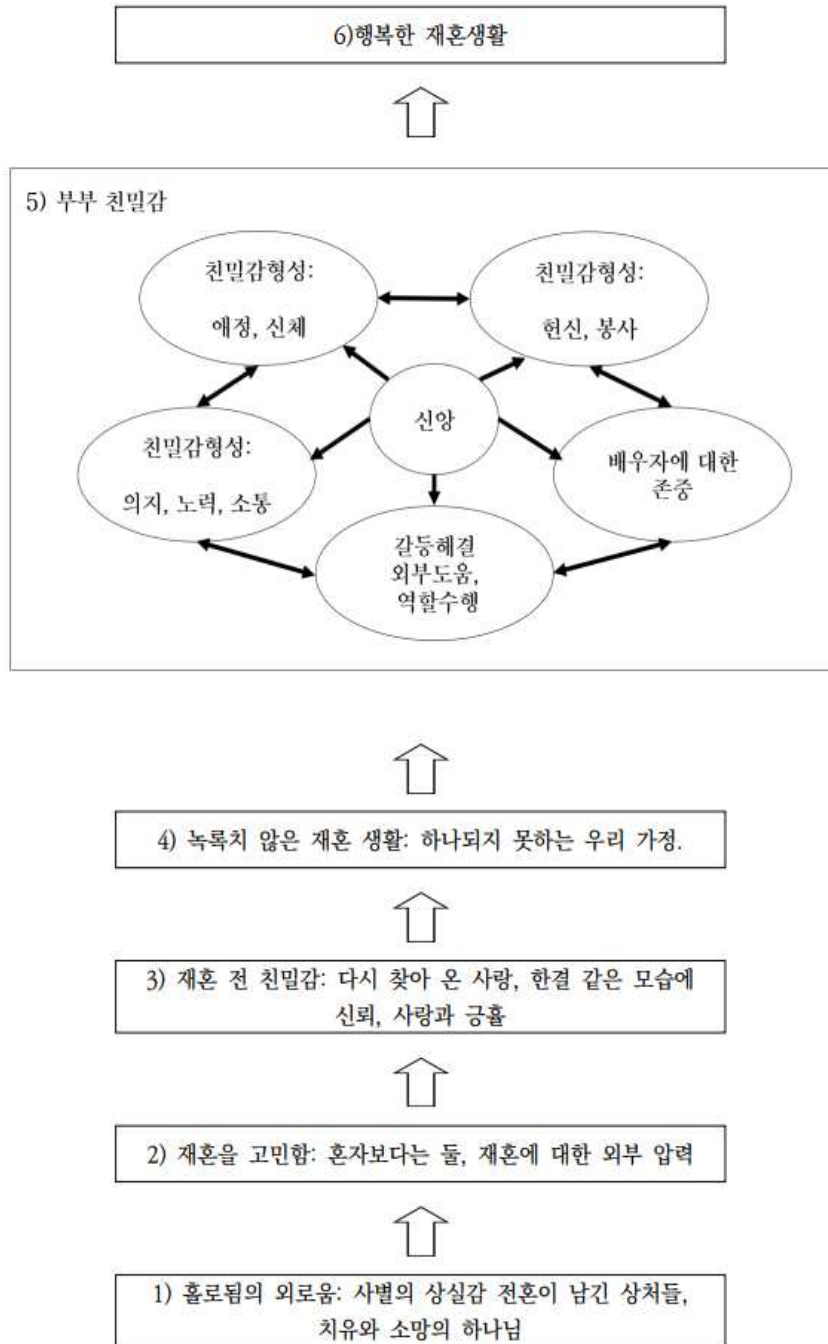
재혼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 내용들을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구조를 기술하고자 한다. 초혼에서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홀로된 참여자들은 전혼에서의 어려움은 어느 부분은 해소 되었지만 행복한 재혼생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1)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구조 모형1

‘홀로 됨’의 외로운의 길을 지나 ‘녹록치 않은 재혼생활’을 감당해야 하며 재혼부부와 재혼가족들의 갈등과 아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한 부부로 안정화 되기까지의 구조를 시간적, 상황적, 맥락에 따라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경험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 구조1’은 참가자들이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홀로 됨’의 단계에서 시작한다. 이들은 사별의 상실감과 전혼이 남긴 상처들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 혼자보다는 둘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재혼에 대한 외부 압력으로 재혼을 고민하며 둘이 되는 준비 과정에 진입하고 다시 찾아온 상대를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신뢰와 상대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며 오랜만에 따듯한 온기를 경험한다. 그러나 홀로됨에서 벗어나 ‘둘이 됨’의 단계에 이르지만 결코 녹록치 않은 재혼생활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갈등과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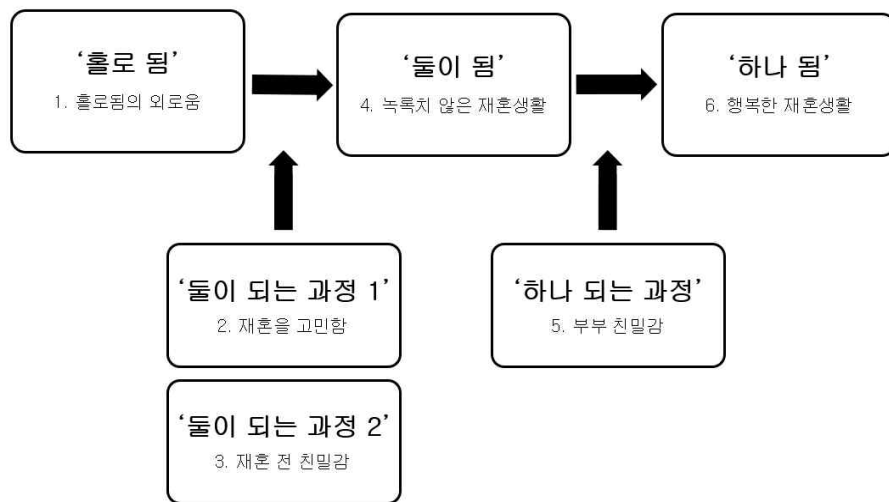
재혼생활은 한 지붕에 살지만 기대했던 ‘하나 됨’의 삶이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괴로움과 갈등에 직면한다. 이들은 ‘하나 됨’의 삶으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홀로 됨’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부부들은 ‘신앙’이라는 핵심 요소를 동력으로 다른 친밀감의 하위 요소들 갈등해결, 외부도움, 역할수행, 배우자 존중감, 헌신, 봉사, 애정, 신체적 관계와 성생활, 의지, 노력, 소통의 친밀감의 하위영역들을 움직인다. 예배와 찬양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을 얻는다. 참가자들은 드디어 돈독해진 친밀감으로 ‘하나 됨’에 성공하여 행복한 재혼생활을 하게 된다.



(그림 1)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 구조모형1

(2)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구조 모형2

기독교 성인중·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경험 구조 2는 (그림 1)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 구조모형 1을 보다 더 한층 재혼 부부의 삶을 맥락적, 시간적으로 살펴 본 것이며 구조 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 구조모형2

연구 참가자들은 ‘홀로됨’, ‘둘이 됨’, ‘하나 됨’의 여정을 지나서 마침내 행복한 재혼 생활에 이르게 된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단계별 친밀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친밀감 형성 경험의 구조모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홀로 됨’의 단계: 1) 홀로 됨의 외로움
 2) 재혼을 고민함: ‘둘이 되는 과정1’
 3) 재혼 전 친밀감: ‘둘이 되는 과정2’
- ‘둘이 됨’의 단계: 4) 녹록지 않은 재혼생활
 5) 부부 친밀감: ‘하나가 되는 과정’
- ‘하나 됨’의 단계: 6) 행복한 재혼생활

‘홀로 됨’의 단계는 1) 홀로됨의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된다. 2) 재혼을 고민하는 것은 ‘둘이 되는 과정1’이 되고 3) 재혼 전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는 ‘둘이 되는 과정2’가 된다. 홀로 살던 삶에서 둘이 되기 위한 과정을 경험한 후 참여자들은 전혼의 상처를 딛고 용기를 내어 ‘둘이 됨’의 단계로 진입한다. ‘둘이 됨’의 단계는 4) ‘녹록

지 않은 재혼생활'이 기다리고 있으며 갈등과 위기로 가정은 위기에 처한다. 부부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5) '부부친밀감'을 돈독히 형성하는 '하나 됨'의 과정을 무사히 성공하여 드디어 '하나 됨'의 단계에 안정적으로 착륙하여 6) 행복한 재혼생활에 이르게 된다.

3)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구조 기술

Giorgi(1985)의 분석방법의 마지막 절차는 하위 구성요소 간의 관계와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구조를 정의하여 기술해 내는 과정이다.

(1) 홀로됨의 외로움: 홀로 됨

다시 홀로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꼽았다. 이혼의 아픔과 상처, 하나밖에 없는 딸을 홀로 키우고 시집 보낸 후의 외로움과 무기력은 내적으로 공허감을 만들었다. 어느 날 이별의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황망히 세상을 떠난 아내와 불현듯 이별한 남편들은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홀로 남은 아내들은 매일 경제적인 현실과 맞닥드려야 했으며 생활은 외줄타기처럼 불안했다. 이혼의 상흔은 현실로 다가가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다는 신앙적 죄목 앞에 자유함을 잃게 되고 깊은 고민을 친밀한 성도와도 나눌 수 없는 철저히 외로움에 갇히는 경험을 하였다. 전 남편의 외도 앞에서 버티어 낸 30년의 공포스러운 삶의 흔적은 심신과 영혼까지 함몰시켰고 심지어 자살 시도에 이르도록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상실감과 상처로 가을날의 바깥 마른 잎이 떨어진 인생 같았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다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삶 가운데 은은하게 때로는 자연을 통해 치료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다.

(2) 재혼을 고민함: 돌이 되는 과정1

초혼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이상도 바뀌면서 학력보다는 신뢰와 믿음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았다. 전혼에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여성들은 신앙을 최우선하고 이어 성품을 기준 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 앞에 충분히 매혹적이고 마음을 흔들여 놓은 이성이 나타났을 때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초혼을 통해 경험한 터라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고뇌하게 되었다.

(3) 재혼 전 친밀감: 돌이 되는 과정2

어느 날 문득 다시 찾아 온 사랑을 첫눈에 알아보는 가슴 설레임을 경험하기도 하고 재혼 상대자를 신중히 기도하며 첫 만남을 가졌는데 여러모로 전 아내와 닮아 있는 상대를 보고 반가움과 친밀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임을 확신하는 놀

라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다시 찾아온 사랑을 상대에게 표현하며 멋진 프로포즈를 해서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내 입에 딱 맞는 음식을 통해 사랑의 메시지는 전달되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했다. 모임에서 먼저 공식 커플 신고를 하며 상대를 안심시키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은 충분히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4) 녹록지 않은 재혼생활: 돌이 됨

그러나 재혼생활은 행복과 함께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다. 새 가정을 이루었지만 오랜 정으로 묶어진 사별한 전 배우자에 대한 예를 갖추고 싶은 남편의 마음과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아내는 커다란 갈등의 요인이 되어 자녀들과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어 현 아내와 자식 사이에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 내 자녀들과 편안하고 오붓하게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배우자의 간섭이 불편하기도 하다. 이를 사실로 말할 수 없어 본의 아니게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곤혹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 자녀들끼리 갈등이 심해져서 화합을 이루기 어려운데 굳이 함께 있게 하려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기만 한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자녀들과의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급격하게 서로 서운함을 드러내게 된다. 재혼 이전에 아내와 약속한 재산 분할은 자녀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되고 공증절차를 통해 가름을 해 놓으면서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남편은 아내와 전혼 자녀 사이에서 힘들어했다. 또한 결혼 이전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재혼 이후 경제적인 기대에 못 미치면서 문제가 발생하며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아내는 결혼을 했으나 남편의 옆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만 같아 망연자실하고 결혼하고 변해버린 남편이 섭섭하다. 약속은 보란 듯이 깨어져 버리고 아내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서 문제만 만들어내는 존재로 되어 버렸다. 아내는 처음 남편에게 향했던 신뢰와 책임성이 의심되고 점점 믿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다. 재혼생활은 오히려 초혼의 무게보다 몇 배를 더하는 것 같고 복잡해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5) 부부친밀감: 하나가 되는 과정

연구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했고 끝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연구 참여자 남편은 천사 같았던 아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이 지속되자 아내의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아내의 행동을 멈추었다. 아내는 제사 문제가 집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부부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여 이를 해결하여 자녀 집으로 제사를 옮겼다. 결혼에 반대하는 자녀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개입을 하고 난 후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의 도움은 부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재혼가정이 위기를 극복하는 도움이 되고 가정이 유지되는데 지원과 지지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으로 인해 그동안 살았던 터전을 옮기고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초혼보다 재혼은 더 많은 복잡성이 있다. 연구 참여자 남편은 불편해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아브라함이 떠나듯 정든 집을 떠나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남편의 역할을 용기 있게 보여주었고 아내는 새로운 곳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연구 참가자 아내는 남편의 전혼 자녀들을 힘을 다해서 품에 품고 돌보고 휴식처와 안식처로 자신의 품을 기꺼이 내어주며 응대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밋더라도 새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전혼 자녀들이 자신의 품으로 기어들어 올 때 내치지 않고 품는 모습이 그려진다. 5년 동안 홀로 방안에서만 은둔 생활을 하고있는 남편의 전혼 아들을 위해 기꺼이 큰돈을 지불하고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당당한 직장인이 되도록 엄마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아들을 살린다.

부부 사이에 친밀도를 높이는 것 중 애정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걷기와 등산, 텀고 춤을 즐기며 문화생활까지 확장하여 살아가고 있다. 사랑의 언어를 교육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다양한 사랑의 표현을 서로 보여주며 세월이 흐를수록 친밀해진다. 연구 참여자 남편은 아내는 남이 아닌 나로 인지하고 한없이 사랑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다. 나보다 더 성숙한 아내에게 투정을 부리고 다시 반성하고 반복하고 있으나 자신을 계속 통찰하려 애쓰는 모습이 있다. 사랑은 홀로 간직하기보다는 표현하며 끊임 없이 상대를 생각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부 사이에 신체적 관계를 통한 친밀감 형성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중요한 요소로 직접적인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며 스킨십을 통해 서로에게 친밀감을 나누고 있다. 이를 통해 배우자에게 사랑받음을 확인하며 행복과 자신감이 상승 되었다. 나이가 들어 재혼했지만 성과 관련된 대화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 만족하며 살게 되었다. 이런 성적 친밀감은 재혼부부를 강력하게 결속시켜 주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기독교인들로 부부간의 친밀감 형성에 가장 기본이며 중요하고 많은 부분이 신앙으로 삶의 전반에 녹아져 내려 있음이 인터뷰 내내 흘러왔다. 하나에서 다시 둘이 되어 가정을 세우는데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문제 해결은 산처럼 많았다. 마치 '신앙'이라는 핵심동력이 감사와 용서, 헌신, 봉사, 의지, 노력, 소통, 애정,

존중, 역할수행 등을 톱니바퀴처럼 돌려주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재혼 생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신앙의 동력은 수년 동안 둘이 하나가 되어 안정적이고 행복한 재혼가정을 세우게 되었다. 행복한 재혼생활에 진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앙이다.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부부가 함께 가정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의 반려자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재혼을 통해 아내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과 세상 춤을 즐기며 그 길로 자신의 끼를 발휘하며 살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파트너를 보내 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하며 부부간의 갈등이 신앙을 통해 감사와 행복의 삶으로 진행된다.

(6) 행복한 재혼생활: 하나 됨

기독교 재혼부부들은 ‘둘이 됨’에서 ‘하나 됨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더 성숙한 행복한 재혼생활의 세계로 나아갔다. 믿기지 않는 충만한 행복을 느끼며 이런 감사로 서로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배우자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있다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배우자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둘이 ‘하나 됨’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한다. 함께 동행하는 재혼부부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 힘이 되어 준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재혼생활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들은 ‘홀로 됨’에서 다시 ‘둘이 됨’의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을 지나 ‘하나 됨’의 행복한 재혼생활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앙’이었다. 부부친밀감의 핵심 요소인 ‘신앙’은 갈등 해결, 외부도움, 역할수행, 애정, 헌신, 신앙, 성생활, 의지, 노력, 소통 등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부친밀감이 형성 및 증대되었던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들의 재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하나님을 모신 즐겁고 행복한 재혼생활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Ⅲ. 닫는 글

1. 연구의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삶 속에 들어가 부부친밀감의 형성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부부 친밀감 경험에 대한 그들의 공통적 의미를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구조는 어떠한가?’ 라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에서 얻어진 사실적인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경험의 심리학적 의미 분석을 시도한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154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33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묶은 후 6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으며, 도출된 구성요소는 ‘홀로됨의 외로움’, ‘재혼을 고민함’, ‘재혼 전 친밀감’, ‘녹록지 않은 재혼생활’, ‘부부친밀감’, ‘행복한 재혼생활’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6개의 구성요소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홀로됨의 외로움>이며 하위 구성요소로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 ‘사별의 상실감’, ‘전혼이 남긴 상처들’, ‘경제적 불안과 고통’, ‘신앙의 괴로움’, ‘가정의 울타리에서 살고픈 열망’, ‘치유와 소망의 하나님’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혼 혹은 사별로 전 배우자와 아픈 이별을 통해 다시 홀로 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경험에 대한 기술이며 외로움은 새로운 상대와의 만남의 동기가 되었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재혼을 고민함>이며 하위 구성요소로는 ‘혼자보다는 둘’, ‘재혼에 대한 외부 압력’, ‘재혼을 주저함’ 등으로 이루어졌다. 홀로됨의 외로움과 고달픔, 세상의 편견과 시선 등은 연구 참여자들의 마음에 재혼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 앞에 충분히 매혹적이고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이성이나 나타났을 때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초혼을 통해 경험한 터라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뇌하고 있음이 기술되었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재혼 전 친밀감>이며 하위 구성요소로는 ‘다시 찾아 온 사랑’, ‘한결같은 모습에 믿음의 싹이 남’, ‘상대를 신뢰하며 마음에 안심되’, ‘부모의 재

혼을 수용하는 자녀들이 고마움', '나의 단점과 당신의 장점', '상대의 아픈 상처를 사랑과 긍휼로 안아줌', '주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와 친밀해짐' 등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문득 다시 찾아 온 사랑을 첫눈에 알아보는 가슴 설레임을 경험한다. 상대에게 멋진 프로포즈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새 배우자를 정함에 있어 기도로 준비하고 모임에서 공식 커플 신고를 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시키며 충분히 친밀감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집에 도둑이 들어 무서워하는 나의 곁을 지켜주는 상대에게 신뢰가 싹트고, 부모의 재혼을 흔쾌히 수용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안심되고 친밀감을 경험한다.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토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주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펼쳐나가며 재혼을 준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내었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 <녹록지 않은 재혼생활>로 전혼 가정의 '정'을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로 괴로움 '경제적인 갈등',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가정', '인정보다는 비난하는 배우자로 상처', '나의 헌신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배우자', '미완성 부부'로 이루어져 있다. 재혼생활은 행복과 함께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다. 사별한 아내의 제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성인 자녀와 재산문제로 재혼부부는 위기에 처해진다. 친자녀와 편안하게 정을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아내와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잘못되는 일은 아내에게 탓하는 남편, 네 손주 내 손주 나누며 차별하는 남편에게 실망스럽다. 폭력을 서슴없이 휘두르는 젊은 아내가 두려워 재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다. 엄마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역할까지 끊임없이 요구받다 보니 지치고, 사별한 남편 옆에는 늘 전 아내가 유령처럼 버티고 있다. 행복의 꿈을 품고 결혼을 했으나 재혼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고 재혼부부에게 갈등과 위기는 휘몰아친다.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부부친밀감>이며 하위 구성요소는 '외부도움', '역할수행', '배우자 존중', '헌신/봉사', '애정', '신체적 관계', '신앙', '의지, 노력, 소통'의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 세운 가정을 다시 해체할 수 없고 자식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뇌며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전 아내의 제사 문제를 부부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내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 딸의 도움을 받는다. 5년 동안 은둔자로 살고있는 남편의 아들을 전문상담을 통해 전문 대학과정을 마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내어놓는다. 재혼부부로 더 성장하기 위해 의지를 담아 부부학교를 다니며 후배 재혼부부들을 상담하고 국내외를 돌며 재혼가정 세우기에 헌신과 봉사를 한다. 서로의 소통을 위해 산책과 운동, 한 달 제주살이 등을 하며 부부친밀감을 쌓고 갈등을 해소한다. 상대를 존

중하며 그동안 살았던 터전을 떠나 제3의 교회와 지역으로 과감하게 옮기는 용기도 발휘한다.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 서로를 예수그리스도 발아래 엎드려 회개와 용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상대를 품게 되었다고 기술한다. 그 일은 부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중에, 두 손을 맞잡은 기도 중에, 말씀을 머금은 묵상 중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 속에 일어났다.

여섯 번째 구성요소는 <행복한 재혼생활>이며 하위 구성요소로 '나의 목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 '언제나 함께 하는 당신', '함께 동행하는 재혼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기독교 재혼부부들은 '홀로 됨'에서 출발하여 '하나 됨'의 행복한 재혼생활의 세계로 나아갔다. 믿기지 않는 충만한 행복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이들은 배우자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있다가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배우자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둘이 '하나 됨'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한다. 함께 동행하는 재혼부부들과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 힘이 되어 준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도록 하심으로 부부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재혼생활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6가지 구성요소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홀로된 고달픔'에서 '하나 됨'의 행복한 부부로 나아가도록 한 요인은 부부친밀감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에게 부부친밀감은 재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매개이며 이런 부부친밀감이 없다면 재혼부부 관계 유지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을 형성하고 향상시키는 의미 단위로 외부도움, 역할수행, 배우자 존중, 헌신, 애정, 신체적 관계, 신앙, 의지/노력/소통 등이 있었다.

둘째, 기독교 재혼부부가 행복한 재혼부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친밀감의 하위 구성요소 중 '신앙'이라는 핵심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앙'이라는 핵심동력이 외부도움, 역할수행, 배우자 존중과 수용, 헌신, 애정, 신체적 관계, 의지/노력/소통 등을 중앙에서 튼튼하게 돌려주어 드디어 행복한 재혼생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구조는 맥락적,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6개의 구성 요소는 크게 '홀로 됨' '둘이 됨' '하나 됨'의 맥락을 보였다. 다시 말해 6개의 구성요소는 '홀로 됨'의 시작에서 '둘이 됨'을 지나 '하나 됨'의 세계로 나아갔다. 이를 구조에 적용하면 첫 번째 '홀로 됨의 외로움'은 '홀로 됨'이었고, 두 번째 '재혼을 고민함'은 '둘이 되어 가는 과정1', 세 번째 '재혼 전 친밀감'은 '둘이 되어 가는 과정2', 네 번째, '녹록지 않은 재혼생활'은 '둘이 됨'의 단계이다. 다섯 번째 '부부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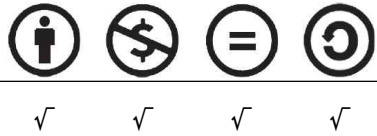
은 하나 됨의 과정이며 여섯 번째 ‘행복한 재혼생활’은 ‘하나 됨’의 전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과정은 ‘홀로 됨’에서 ‘둘이 됨’을 지나 ‘하나 됨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와 제언

기독교 부부 상담 혹은 기독교 가족 상담현장에서 기독교 상담사들은 부부갈등을 줄이고 부부친밀감을 향상 시키는 것을 상담 목표로 노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독교 중·노년기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을 분석하여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에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상담현장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재혼부부는 초혼부부와 다른 상황에서 ‘둘이 됨’에서 온전한 ‘하나 됨’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비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신앙’의 동력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기독교 상담현장에서 이를 적용하여 친밀감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접근을 하여 재이혼을 예방하고 행복한 재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내용을 통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재혼생활 가운데 나타난 친밀감 경험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부부친밀감 경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대상 선정은 기독교 재혼부부 중 결혼 안정기에 진입한 중년이후의 성인들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신혼기 이혼으로 젊은 층의 재혼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혼기 재혼부부의 연구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재혼생활이 해체되지 않고 ‘하나 됨’으로 성공한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둘이 됨’에서 ‘하나 됨’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홀로 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재혼부부의 친밀감 형성 경험의 내용과 구조를 연구함에 있어 남편과 아내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연구를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기독교 재혼부부의 친밀감 형성에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연구 또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부부친밀감의 형성에 신앙이라는 동력의 역할을 밝혀 내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신앙의 요소들이 재혼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요소들의 분석까지 진행 할 필요가 있겠다.

- 논문 투고일: 2022년 10월 14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11월 05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13일



【참고문헌】

- 김미순 (2014). 목회자 부부의 의사소통능력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호남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명자 (2007).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및 자아분화와 부부갈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숙 (2016).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지금출판사.
- 고은영, 서영석 (2012). 재혼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97-419.
- 구본진 (2008). 중년여성의 극복력, 희망, 부부친밀감 및 가족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7(4), 421-430.
- 권예원 (2017).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갈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 권혁출 (2014). 재혼모가 경험하는 재혼가족 갈등극복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 준 (2017). 부부 갈등과 용서: 자기 심리학과 기독교상담적 관점. **복음과 상담**, 25(1), 9-34. <https://doi.org/10.17841/jocag.2017.25.1.9>
- 김경자, 임선영 (2007). **결혼 그리고 가족**. 서울: 구상출판사.
- 김기철 (2021). 사랑호흡을 통한 부부 영적 친밀감 증진. **목회와 상담**, 36, 72-103. <https://doi.org/10.23905/kspcc.36..202105.003>
- 김명자 (1990). 교환 이론적 관점에서의 가족학 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8(3), 147-160.
- 김명희 (2007).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 (2014). 재혼가족의 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옥, 천성문, 심운경, 김찬미 공저 (2017). **재혼가족 부모교육 코칭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김번영 (2011). **재혼코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병오 (2010). **상처와 슬픔의 치유**. 서울: 대서.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대한간호과학회지**, 29(6), 1208-1220.
- 김성환 (2009). 폭력피해 아내 적응 가정-기독교인 재혼가정. 한영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옥 (2002). 재혼가정 내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319-342.
- 김연옥 (2004). 재혼가정의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215-235.
- 김연옥 (2007).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재혼모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171-195. <https://doi.org/10.20970/kasw.2007.59.2.007>
- 김연옥 (2012). 재혼가족의 가족경계보호성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3), 183-202. <https://doi.org/10.20970/kasw.2012.64.3.008>
- 김연옥 (2014). 재혼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분석; 경계와 역할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4(6), 31-55. <https://doi.org/10.16975/kjfs.2014..44.002>
- 김연희, 문승태, 장선철 (2003). **교육연구방법**. 서울: 동문사.
- 김인복 (2020).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형성 경험의 현상학적 연구. 평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선 (2020). 국제결혼 부부의 의사소통 및 스트레스대처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친밀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권 (2017). **성경 문화배경 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준수 (2001). 친밀감 향상을 통한 부부관계 회복. **ACTS 신학과 선교**, 10, 181-214.
- 김준수 (2006). **마음의 치유: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 서울: 디모데.
- 김준수 (2010). 교회 안의 가정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총서 01**.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 김태숙 (2020).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친밀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한 (2011). 새엄마의 재혼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1996). **결혼과 사회**.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형민 (2015).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 연구: 기독교인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 (2001).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친밀감의 관계.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2015). 재혼모의 제자녀 양육 좌절 경험연구. 백석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김효순 (2006). 재혼가족의 역할긴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부모와 청소년 제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순 (2014).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새부모·재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40-147.
- 김효순 (2015).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새부모·재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262-280. <https://doi.org/10.5392/jkca.2015.15.02.262>
- 김효순 (2016).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재혼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39-269. <https://doi.org/10.15709/hswr.2016.36.3.239>
- 김효순, 엄명용 (2007).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1, 75-102. <https://doi.org/10.16975/kjfs.2007..21.003>
- 김효순, 엄명용, 박미정 (2010). 재미한인교포의 이혼 후 재혼생활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5-28. <https://doi.org/10.20970/kasw.2010.62.2.001>
- 김효순, 하춘광 (2011a).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4), 67-101.
- 김효순, 하춘광 (2011b).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새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학회지**, 23(1). 137-168.
- 김효신 (2004). 재혼가족 내 모의 갈등과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 순, 안명숙, 이명훈, 이정신, 이정우, 이호선, 장석연, 장성금, 전혜리, 최양숙 (2016). **상담학 질적연구방법론 사례집**.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경례 (2021). 재구성 가족의 삶의 질과 변화과정에 관한 혼합연구: 재혼을 경험한

- 성인의 관점에서.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자 (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박민지 (2006).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 사소통.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15). 재혼 초기 모친과 동거하는 여중생의 가족생활 갈등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6(1), 285-304. <https://doi.org/10.15703/kjc.16.1.201502.285>
- 박성덕, 이우경 (2008).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서울: 학지사.
- 박수진, 이인수 (2015). 부부의 원가족 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 23(2), 381-400. <https://doi.org/10.21479/kaft.2015.23.2.381>
- 박희정 (2018). 재혼부부 자기분화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서울벤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정, 변상해 (2017).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236-251. <https://doi.org/10.5392/jkca.2017.17.07.236>
- 변복수 (2014). 재혼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선아 (2009). 중년기 남성의 부부친밀감이 생활만족도 및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욱, 노영희,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원하 (2001).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들**. 서울: 예영B&P.
- 신원하 (2002). 이혼은 제자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신학윤리학적 검토. **기독교사상**, 46(5), 32-45.
- 안경승 (2006). **복음주의 가정상담학: 가정과 영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안향림, 홍미기 (2006). **이혼가족과 재혼가족**. 서울: 홍익재.
- 양진선 (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향, 신경림 (2003). 현상학적 방법 적용 논문 분석 및 바람직한 글쓰기. **질적연구학회**, 4(2) 87-99.

- 엄예선 (2007).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 오성춘 (1994). **기독교가족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의 성경적 기초**.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 오윤선 (2002). 기독교인 결혼 만족도의 스트레스 및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 **복음과 실천신학 4**, 201-214.
- 오윤선 (2012).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용서프로그램이 기독교 청소년의 용서경험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복음과 상담, 19**, 217-244. <https://doi.org/10.17841/jocag.2012.19..217>
- 오윤선. (2009).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예영B&P.
- 오윤선. (2017). 기독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감사성향이 행복증진 활동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5(2)**, 149-180. <https://doi.org/10.17841/jocag.2017.25.2.149>
- 오지수 (2011). 이혼 및 재혼 가정의 교회 정착에 대한 목회 윤리적 고찰. 침례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명순 (2010).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관한 연구: 자아정체감, 부부의사소통, 양성평등의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명순, 임은자 (2010), 중년기 기혼남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 16(4)**, 339-415.
- 유영주, 양순미 (2017).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 유재은 (2014). 재혼가정 내 불안정애착 유아와 모의 미술치료사례.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혜 (2007).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의 개방이 부부의 관계 웰빙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파트너 반응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혜, 신희천 (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3(1)**, 17-32. <https://doi.org/10.21193/kjspp.2009.23.1.002>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6)**, 235-249.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남순 (2015). 재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 우희정, 노명희, 최정미.(1999).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43-54.
- 이은영, 김수진 (2021), 국내 재혼관련 연구 동향분석: 2008-2019년 발간된 학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99-121. <https://doi.org/10.21321/jfr.26.1.99>
- 이인수 (2015).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2), 381-400. <https://doi.org/10.21479/kaft.2015.23.2.381>
- 이정란 (2019). 부모전환기 부부친밀감의 삼각모형 개발.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선 (2003). 중년기 부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기독교 프로그램 개발.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송은 (2008). 도시 단독가구 노인의 부부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부부관계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정숙 (2007). 부부친밀감이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웅 (2011). 기혼 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 71-82.
- 장수진(2006). 결혼 초기 부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정 (2010). 여성의 재혼경험을 통해 본 결혼의미의 구성과정: 전남지역 중소도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현정 (2010). 여성의 재혼경험을 통해 본 결혼의미의 구성과정; 이혼 후 재혼한 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2), 55-93. <https://doi.org/10.21478/family.22.2.201006.003>
- 전요섭 (2013).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목회상담의 방향: 한부모 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방향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 1-35.
- 정현숙 (2016). **가족생활교육**. 서울: 신정.
- 정현숙, 유계숙, 최연실 (2003). **결혼학**. 서울: 신정.

- 정화숙 (2008). 중년기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감 및 스트레스가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1, 350-351.
- 조양희, 오은화 (2022). 재혼여성의 이혼위기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인문사회** 21, 13(2), 575-590.
- 차연실 (2003). 재혼모의 역할긴장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광현 (2011).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 위기 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 **복음과 상담**, 17, 179-202. <https://doi.org/10.17841/jocag.2011.17..179>
- 최이화 (2020). 성격적 결혼관을 통한 크리스천 부부의 친밀감 경험: 질적사례연구. 충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인중 (2010). **이혼의 원인: 거짓 친밀감**. 목회와 신학총서.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 Adams, J. E. (2008).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혼·재혼**(송영자 역,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서울: 베다니. (원전 1986 출판).
- Antonio, J. F. (1965). The intimacy need in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24, 190-194.
- Bagarozzi, D. A. (2001). *Enhancing intimacy in marriage: A clinician's guide*. NY: Brunner-Routledge.
- Balswick, J. O., & Balswick, J. K. (1999).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Campbell, K. M. (2005). *Marriage and family in the biblical world*.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 Chapman, G. (2015). **부부학교** (김유태 역, *Covenant marriage*). 서울: 황금부영이. (원전 2006 출판).
- Clinebell, H. (1995). **전인건강** (이종현, 오성춘 역, *Well being: A personal plan for exploring and enriching the seven dimensions of life*).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92 출판).
- Creswell, J. W. (202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원전 2015 출판).
- Dean, O. (2004). **관계의 연금술** (김현성 역, *Love and survival*). 서울: 북하우스.

(원전 1999 출판).

- Desmond, T. A., & Brinan, S. Rosner (2004). **IVP 성경신학사전** (권연경 등 역,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서울: 학지사. (원전 2000 출판).
- Erikson, H.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E. B.
- Furstenberg, F. F. Jr., & Spanier, G. B. (1984). The risk of dissolution in remarriage: An examination of Cheriln's hypothesis of in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Family Relations, 33*, 433-441.
- Ganong, H., & Coleman, M. (2003). **재혼가족 관계** (김종숙 역,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서울: 한국문화사. (원전 1994 출판).
- Giorgi, A. (2012).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and psych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43*, 3-12.
- Greenberg, L., & Johnson, S. (1986). Affect in marital therapy. *Journal of Marital Therapy, 12*, 1-10.
- Hetherington, E. M. (1999).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ugenberger, G. P. (1994). *Marriage as a covenant: Biblical law and ethics as developed from the Malachi*. Eugene, OR: Wipf & Stock.
- Ihinger-tallman, M., & Pasley, K. (1987).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Guilford Pres.
- Johnson, S. M. (2008). **정서 중심적 부부치료**(박성덕, 이우경 역,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서울: 학지사. (원전 2006 출판).
- Mark, A., & James, N. (2017). **기독교가족치료** (전요섭, 한숙자, 변영인 역, *Family therapies*).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2009 출판).
- Marshall, A. J., & Harper-Jaques, S. (2008).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s ideas for healing. *Journal of Family Nursing, 14*(1), 56-73.
- Moss, B., & Schwebel, A. (1993). Defining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1), 31-37.
- Nichols, M. P. (2011). **가족치료: 핵심개념과 실제 적용** (김영애, 김정택 역,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7 출판).

- Pasley, K., Dollahite, D., & Ihinger-Tallman, M. (1993). Bridging the gap: Ap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on the spouse and stepparent role in remarriage. *Family Relations*, 42, 315-322.
- Popkin, M. H., & Einstein, E. (2013). **재혼가정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오제은, 홍경자, 김유정 역, *Active parenting for stepfamilies parent's guide*). 서울: 학지사. (원전 2007 출판).
- Schaefer, M., & Olson, D. (1981). Assessing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47-60.
- Schaumburg, H. (2014). **거짓된 친밀감** (윤중석 역, *False intimacy*). 서울: 두란노. (원전 1991 출판).
- Sternberg, R. J. (2002). **사랑의 기술** (류소 역, *Cupid's arrow*). 서울: 사군자. (원전 2000 출판).
- Stott, J. (2011).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서울: IVP. (원전 1984 출판).
- Thornton, L. R. (1989). A biblical approach to establishing marital intimacy Part III: Commands and commendations. *Calvary Baptist Theological Journal*, 30-73.
- Visher, E. B., & Visher, J. S. (2003). **재혼 가정 치료: 행복한 복합가정 이루기** (반건호, 조아랑 역, *Therapy with stepfamilies*). 서울: 빈센트. (원전 1996 출판).
- Wechsler, D. B. (2008) **내 남자를 위한 관계의 심리학** (윤정기 역, *When good men behave badly*).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원전 2004 출판).
- White, L. K., & Booth, A. (1985).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emarriages: The role of step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5), 689-698.
- 통계청 (2021).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1/index.board?bmode=read&aSeq=388686&pageNo=1&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2년 9월 20일 인출.
- 통계청 (2022). 2021년 혼인 이혼 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w/1/2/3/index.board?bmode=read&aSeq=417326&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2년 9월 20일 인출.

[Abstract]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Christian Middle and Late Adult Remarried Couples

Seo, Eun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marital intimacy formation experience by understanding the common meaning of Christian middle-aged and old-age remarried couples' experiences of marital intimacy and by revealing the structure of the experience of marital intimacy.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hristian middle-aged and elderly remarried couples. The research question is first, what is the content of the experience of forming marital intimacy of remarried couples in the middle and old age of Christianity? Second, what is the structure of Christian middle-aged and elderly remarried couples' experiences of forming marital intimacy? to be. By analyzing the in-depth interview data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loneliness of loneliness', 'considering remarriage', 'intimacy before remarriage', 'unfavorable remarriage life', 'marital intimacy', 'happy remarriage life' It is categorized into six components, and it can be seen as a general structure that constitutes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 of forming intimacy with remarried couples. It was found that the greatest driving force for Christian remarried couples to move from 'becoming two' to complete 'oneness' is 'fait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help remarried couples form intimacy, prevent re-divorce, and maintain a happy remarriage life by actually applying it in the Christian counseling field.

Key words: Christian remarriage, remarriage, marital intimacy, phenomenology, middle and old age

*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 Special Professor